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74호 【루체 제 24322호】 주제 102(2013)년 10월 1일 (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설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오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감자농사혁명의 불길들 지펴주신 1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87(1998)년 10월 1일 량강도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력사적인 방침을 하시였으며 대흥단군을 시범단위로 하여 감자농사를 대대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사스러운 명절들이 겹치고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1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대흥단군에서는 예년에 보기 드문 감자작황이 마련되였다. 지금까지 감자생산에서 최고기록이었던 주체 100(2011)년의 정보당수확량을 돌파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뿐만아니라 당의 농촌건설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흥단군이 최근년간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대단하다. 우리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의 생활력은 대흥단군의 현실을 통하여 뚜렷이 검증되고있다. 대흥단군으로써 투쟁할 때 우리는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킬수 있다.

우리는 대흥단군에서 이룩되있는 좋은 성과와 경험을 온 나라에 널리 일반화하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생산과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야 합니다.》

경공업전선과 함께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력방향으로 정하고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당은 일제히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여 농업생산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며 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었다. 당의 강성부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전령사로서 내달리고있는 사람들이 대흥단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길에서 어떤 정신과 기풍으로 투쟁해야 하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의 기상을 어떻게 과시하여야 하는가를 실현투쟁으로 보여주고있는 농업전선의 선구자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감자농사혁명방침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감자는 생산성이 매우 높고 추위견딜성이 강하며 병해충에 강하며 수확이 편리하며 심을수 있는 좋은 다수확작물이다. 부침떡면적이 제한되어있으며 산이 많고 병해가 심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감자농사를 잘 지으면 농업생산은 훨씬 늘일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농업생산구조를 대담하게 개선하며 적지적작, 적기

적작의 원칙에서 감자를 심을수 있는 모든 곳에 감자를 대대적으로 심고 그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뚜렷이 명시하시였다. 여기에는 병해충대뿐아니라 복부산란지대에서도 농사를 잘 지어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커다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가 담겨져있다.

대흥단군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 주신 좋은 품종의 감자종자를 심고 고원지대의 요구에 맞게 비배관리체제를 바로세워 감자농사에서 전환을 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이 현실로 꽃피고있는 대흥단군의 모습을 통하여 백두대지를 비롯한 적지에 감자밭면적을 늘이고 병해충대에서도 알곡무작물로 감자를 심어 두벌농사를 잘 지으면 식량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것이 실현으로 증명되고있다.

우리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의 생활력은 빠른 시일안에 농업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높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농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업문제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대흥단군에서는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감자농사에서 세계를 더디고 올라설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감자 정보당수확고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고 고기생산을 부쩍 늘여 인민생활을 날로 향상시켜나가는 대흥단군의 투쟁경험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빠른 시일안에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고있다. 대흥단군에서 창조되고있는 농업생산전형을 널리 일반화하여 긴장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자는것이 당의 요구이다.

우리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의 생활력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농사에서 앞선 과학농법을 받아들이고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우리 농촌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고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여나갈수 있다.

대흥단군에서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유종한 다수확품종을 심고 그 재배와 가공, 보관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과학화하였다. 감자연구소가 현대적수준으로 훌륭히 일떠서고 무비무산감자육종과 재종체계를 확립하여 감자농사에서 종자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새로운 감자씨뿌리기와 통일감자심기, 물거름을 비롯한 유기질 비료를 기본으로 하는 시비체계, 중경제비로 감자밭이랑을 놓여주는 방법을 비롯하여 대흥단군에서 창조된 감자농사방법은 하에서부터 열까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씨뿌리기, 비료주기, 감자수확을 비롯한 모든 영농공정의 종합적체계화를 실현하고

정보당수확고를 훨씬 높여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한것은 농업생산에서 구현해야 할 본보기로 된다. 대흥단군에서처럼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영농공정과 영농기술을 부단히 개선해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빠른 기간에 농업생산을 부쩍 늘일수 있다.

지난 15년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길에서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와 일본에서서 혁신이 일어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흥단군에서 1950년대에 백두고원의 원시림을 개간하여 길과 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농장을 개척한데 비하여 실례하는 대규모농장을 개척하는 데는 2000년대에는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식량문제해결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개척자들이 나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많은 제대군인들을 대흥단군에 파견해주고 그들이 감자농사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울 각오가 되어있고 혁명적근인정신을 체질화한 제대군인당원들이 대외의 양장에서 감자농사의 돌파구를 열어주었다.

오늘 대흥단군의 모든 사람들은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이 뼈속까지 들어차있으며 당의 권위를 실현투쟁으로 굳건히 옹위할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제대군인당원들속에서 농장을 떠메고나갈 일꾼들이 자라나고 새 세대들속에서 후원의 창조자들과 과학기술인재들이 수없이 배출된것은 감자농사혁명을 통하여 당과 조국을 충실한 혁명가들을 키우려는 우리 당의 정책이 천만번 옳다는 것을 뚜렷이 검증하고있다.

당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펼쳐놓았다. 이는 불같은 의지, 선진시대 농업혁명의 개척자라는 대흥단군사람들의 비상한 자각에 의하여 백두대지가 천지개벽되고있다. 육지구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로 정성이 번쩍 들게 면모를 일신하고 감자가공공작, 국가공공작을 비롯한 현대적인 생산기들이 그중간에 갖추어져 군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졌다. 대흥단군에서는 5호발전소와 소용담수를 따라 계단식으로 건설한 1, 2, 3, 4호발전소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 군민의 전력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하여 덕을 보고있고 우수하고 발전하고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심장이 새긴 대흥단군사람들의 불굴의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농장마다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과 문화시설들이 일떠서고 당의 인민적시책이 훌륭히 구현되어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이 대흥단이다.

대흥단군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불타고있는 백두고원의 넓은 대지에서 새 세기 농업혁명의 본보기를 창조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결집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감자육종체계와 고리형순환생산체계로부터 농업생산의 종합적체계화와 감자가공공문제에 이르기까지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대흥단군을 여러차례나 찾으신데서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시며 온 나라가 대흥단군을 따라배우도록 내세워주시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백두산전리밭에서 온 나라를 기쁘게 해주는 좋은 감자작황이 펼쳐지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대흥단군과학농법이 창조되었다. 대흥단군의 자랑스러운 현실이야말로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강고히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은 애국헌신에 의하여 이룩된 결집체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위대한 대흥단군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나라의 농업생산발전을 위한 최후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농업전선을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시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발휘되는 수령적사용위정전, 동지애의 미풍을 높이 내세워주시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주체농업을 현실속에서 커다란 은을 내도록 혁명하게 이끌어주시는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세대동반기간과 고산과농장 농력확장공사를 비롯한 대상건설이 힘있게 전개되고 농산물 생산, 양어와 파수부문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고있다.

우리는 지난 15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시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농업부문에 농업생산과 근로자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참된 충신이 되어야 한다.

대흥단군에서 오늘과 같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군민의 결집된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일심동체로 되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우수하고 발전하고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은 우리의 생명선이다. 이것이 대흥단군사람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대흥단군들께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농사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풍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대흥단군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단위들을 본보기로 삼아 잘 꾸리고 백두산전리밭의 불멸의 생명선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불굴과 같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헌성을 숭고한 귀감으로

삼고 한치의 땅, 한포기의 곡식도 자기의 살림처럼 여기며 모든 지성을 다 바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대흥단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리상을 높이 받들고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백두산전리밭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훌륭히 전변시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인민생활향상 전략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나라의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있다. 숭고한 인민사랑의 현지지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라나고 그러며 호풍한 감자작황과 최후한 사회주의선경을 펼친 대흥단군사람들의 투쟁기풍은 원수님 따라 나아가는 길이 인민생활향상대군들의 소리가 있다는 철리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로선과 정책을 백승의 보검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농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가고 있다. 농치부문에서는 당의 의도대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정보기술, 생물기술 등 첨단기술에 기초한 생태농업생산 방식을 확립해나가고 있다. 유기질비료의 생산과 그 효과성을 높여 농사에 널리 이용하게끔 화학비료의 시비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농업근로자들은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농촌정리제도를 철저히 고수하고 농촌에 깊이 뿌리내린 사회주의적집단정리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보급자리로 여기며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헌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대흥단정신, 대흥단기풍으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여나갈수 있다. 대흥단정신, 대흥단기풍은 위대한 장군님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창조된 결사관철의 정신, 일심동체의 혁명적기풍, 주인다운 일본새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우리처럼 군인건설, 군인기백으로 창조한 대흥단사람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전진해나가는 여기에 농업전선이 《마시령속으로》로 질풍같이 내달릴수 있는 근본방도가 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대흥단사람들처럼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일관성있게 철저히 관철하여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여야 한다. 육종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우리 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는 여러가지 좋은 품종을 얻어내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비료를 적게 요구하면서도 높은 수확을 내는 품종, 생육기간이 짧고 가을과 비바람, 맹해와 병충해와 같은 자연적악에 잘 견디는 우량한 종자들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오늘 대흥단사람들은 마시령스키장과 세로등산이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거창하게 일떠서고있는 시대의 막대한 흐름에 순결을 맞추며 농업전선의 앞장에서 폭풍처럼 나아가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활등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모든 논밭을 옥토로 만들어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농산물 생산, 파수와 축산의 순환식생산체계를 세워 알곡과 축산물, 과일생산을 늘이며 버섯과 남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두벌농사를 실리기 위해 앞뒤구루에서 다용근소출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농업혁명은 곧 농업과학기술혁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농업과학기술혁명을 다그쳐야 농업이 풍요와, 현대화, 과학화되고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킬수 있다.

우리는 농촌정리의 종합적체계화를 실현하는것을 농업과학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도시정리사업으로 논밭이 큰 규모의 기계화조정으로 전환되고있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하여 모든 영농작업을 다 기계화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능률높은 농기계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연구에서는 종자문제, 영농기술과 영농방법문제와 같은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로 우리 당을 옹위하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높은 사명성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더욱 자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농업근로자들은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농촌정리제도를 철저히 고수하고 농촌에 깊이 뿌리내린 사회주의적집단정리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보급자리로 여기며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헌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대흥단정신, 대흥단기풍으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여나갈수 있다. 대흥단정신, 대흥단기풍은 위대한 장군님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창조된 결사관철의 정신, 일심동체의 혁명적기풍, 주인다운 일본새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우리처럼 군인건설, 군인기백으로 창조한 대흥단사람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전진해나가는 여기에 농업전선이 《마시령속으로》로 질풍같이 내달릴수 있는 근본방도가 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대흥단사람들처럼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일관성있게 철저히 관철하여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여야 한다. 육종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우리 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는 여러가지 좋은 품종을 얻어내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비료를 적게 요구하면서도 높은 수확을 내는 품종, 생육기간이 짧고 가을과 비바람, 맹해와 병충해와 같은 자연적악에 잘 견디는 우량한 종자들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오늘 대흥단사람들은 마시령스키장과 세로등산이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거창하게 일떠서고있는 시대의 막대한 흐름에 순결을 맞추며 농업전선의 앞장에서 폭풍처럼 나아가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활등을

### 경애하는 김정일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와 함께 중국의 당과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배 이 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4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강건은 중국의 력사발전과 수억만 인민들의 운명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지난 60여년간 중국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과 세인을 놀래우는 커다란 변혁이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힘을 집중하여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대외적지위를 부단히 강화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중국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습니다. 조종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과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심혈이 깃들어있고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종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조종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과 귀국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 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

주제 102(2013)년 9월 30일

평 양

### 경애하는 김정일은동지께서 중조우호협회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조우호협회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은동지께서 드리는 선물을 중조우호협회 회장인 무동화당장이 9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끝없이 룡성번영할 래양민족의 기상 과시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폐막, 130여만명 관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즈음하여 지난 7월 22일에 개막되던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9월 30일 폐막되였다. 위대한 대흥단군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더욱 빛내고 끝없이 룡성번영할 래양민족의 결연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안겨준 공연을 130여만명의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손님들이 관람하였다. 이는 사상예술품으로 하여 만사람의 경탄을 불러일으킨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빛나게 기록해갈 우리 선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기상과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뜻깊은 올해 성황리에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령도따라 대 흥단군을 넘어나가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새로운 화폭들로 펼쳐보였다.

4면으로 계속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

##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 발표 15돐을 맞으며

### 소리치며 일떠선 감자농사의 본보기고장

그 이름만 불러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와 가슴이 젖어드는 력사의 땅 대흥단!

15년전 잊지 못할 영광의 그날과 더불어 그 이름 빛나는 대흥단군은 오늘 감자농사의 본보기로, 종합적기계화실현에서 전국의 앞장에 선 단위로 온 나라에 자랑될치고있다. 포전에 가보아도, 마을에 들러보아도, 그 어디에 찾아가보아도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는 최한한 현실이 펼쳐져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은 안아온 금지높은 이 현실은 우리 인민들에게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대흥단군을 감자농사혁명의 본보기로 꾸밀것을 결심하고 대흥단군을 감자농사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나아가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었습니다.》

대흥단군에는 자랑중의 자랑이 있다.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 이 자랑스러운 현실앞에서 사람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고 있다. 대흥단군이 감자농사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나아가길 갈수록 활짝피어지고 여러차례 나 백두삼천리별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 다수확감자종자를 심고 제배방법을 개선하며 물거름을 많이 주면 감자수확고를 높일수 있다고, 감자농사를 통이 크게

잡혀보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이 백두삼천리별에 세차게 타올랐수 있었다.

그러하여 군에는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가 훌륭히 꾸려져 우리식으로 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체제와 공급체제가 정연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잊지 못할 15년전의 그날 감자농사에서는 종자가 기본이라고, 감자농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서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심장으로 받아 안고 감자연구소의 연구자들은 만부수원종자감자들을 생산하여 대흥단군은 물론 함강도와 함평북도, 함평남도를 비롯한 북부지구 감자산지들에 보내 주고있다. 또한 이 고장에서 대대로 내려오며 감자를 조개여 식던 로배기농사들은 영영 자취를 감추고 통일체로 심는 감자농사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이뿐이 아니다. 물거름에 의한 감자 생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지고 중경초기에는 된 감자밭비배관리에서 참으로 많은 성과가 기록되었다.

10여개의 돼지목장이 건설되어 왔으며, 감자농사를 통이 크게

물거름이 포전에 나가고 그에 따라 감자와 고기가 쏟아져 나오는 고리형순환생산체제가 확립됨으로써 농수산물은 생산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그런가하면 감자밭을 푸실푸실하게 하면서도 밭이랑을 높여 주어 장마철에도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복주방방법을 비롯하여 대흥단과학농법들은 온 나라 감자산지들에 적극 일반화되었다.

농업근로자들은 방대한 규모의 배수로와 골포공사를 진행하여 그 어떤 큰물과 가물에도 끄떡없이 감자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하였다. 또한 농작물들이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바람막이술이 온 백두삼천리별을 억척같이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그러하여 감자생산에서는 일대 비약이 일어났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15년전에

비하여 감자 정보당 수확고가 몇배로 높아지는 놀라운 성과가 기록되었다.

종합적기계화실현에서도 대흥단군은 전국의 앞장에 서있다. 마력수들은 트랙토르들과 려원농기계들, 자동차들과 트럭한 수리기가 등이 그뿐이 갖추어져있는 대흥단군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 리상들을 깨고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감자심기와 가꾸기, 수송을 전부 농기계의 자동화로 하고있는 오늘의 자랑한 현실을 보며 이곳 사람들은 대흥단군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뭉툰이 느끼고있다.

대흥단군의 놀라운 전변은

한 각종 농기계들이 농장작업마다 일식으로 갖추어져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농기계전시장에 오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를 의심한다. 불이든 감자와 농기계가 포전을 누벼가다가 하면 여름이면 부뚜막을 단 트랙토르들이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감을 잡고 풍요한 가을이면 감자종합수확기들이 주먹같은 감자들을 깨고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감자심기와 가꾸기, 수송을 전부 농기계의 자동화로 하고있는 오늘의 자랑한 현실을 보며 이곳 사람들은 대흥단군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뭉툰이 느끼고있다.

대흥단군의 놀라운 전변은

어제날의 제대군인들이 감자농사의 당당한 주인들로 역세게 자리안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삼천리별로 달려온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농학기사, 농기계기사, 수의 축산기사가 되어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수백명의 제대군인들이 이제는 당일군, 판리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으로 자리났으며 대흥단군의 미래는 얼마나 창창한가. 어찌 이뿐이라. 대흥단군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된 군의 가슴벅찬 현실, 정녕

안고 달려온 개성시의 공장촌들, 당의 원대한 구상을 앞장서 실현할 뜨거운 마음들로 가슴 불태우며 정든 평야와 고향명을 떠나 여기 백두삼천리별에 보금자리를 편 처녀들이 오늘은 감자농사에서 단단히 환호하는 애절한 실농군들로 되었다. 대흥단군은 정발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백두삼천리별에 펼쳐진 수많은 자랑을 어떻게 다 말할수 있겠는가.

우리 당이 지켜준 감자농사혁명의 거대한 불길속에서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으로 전변된 군의 가슴벅찬 현실, 정녕

그것은 대흥단군을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에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정성이 안아온 자랑한 결실인것이다.

대흥단군의 자랑한 전변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간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설레이고있다. 고난의 시기에 자주 오시어 나아가길 갈수록 활짝피어지고 행복한 날에는 멀리 떠날지도의 길에서 자기를 추켜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새로운 위훈창조로 수놓아온 대흥단사람들, 지난 15년간 자기들이 달려온 영광의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율령전투검속에 펼쳐나선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일대시대를 내 조국에 빛을 주었다. 대흥단군은 더욱 몰라보게 전변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용호



## 대담하게 또 비약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농사혁명의 포성을 울리신 때로부터 열다섯번째의 년모이 새겨졌다. 금지높은 자랑스러운 그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는 대흥단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에서 뜨겁게 울려나오는 목소리가 자다.

《위대한 장군님, 우리는 영광의 그날에 가르쳐주신대로 감자농사의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장군님께서 정해주신 감자생산목표를 해마다 넘쳐 수행함으로써 전국의 본보기단위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겠습니다.》

뜻깊은 올해에 또다시 감자농사에서 장훈을 부른 이들의 기세를 총출한다.

백두삼천리별에서만이 아니다. 북부지대에 서부터 분계연선 연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농촌들에서 감자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불같은 맹세가 터져오르고 있다.

감자농사는 인민생활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은 이미전에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되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농사를 잘하면 식량문제는 고기문제도 풀수 있고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주제 87(1998)년 가을, 대흥단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는 생산성이 높은 다수확작물이라고, 감자를 정발 60t씩 대야 알곡을 15t씩 생산하라고도 된다고 하시면서 감자농사가 자라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켜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나날에 대흥단군사람들은 감자는 여러가지 영양소가 많고 리용가치가 대단히 큰 작물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오늘

대흥단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이 나게 된것도 감자농사혁명을 일으켜 감자생산을 늘여온 덕이다.

감자농사를 하면 식량문제는 물론 그 부산물로 돼지를 길러 고기문제도 풀수 있고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것이 대흥단군만이 아닌 각지 농촌들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이다.

현실은 감자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면 살길이 열리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가르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담하게 결심하고 떨쳐나 감자농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대흥단군이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 계속 앞장 서나가고 다른 모든 농촌들이 감자농사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뛰어들어야 한다.

북부지대 농촌들에서는 대흥단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 수확고를 백두삼천리별의 수준으로 빨리 끌어올리고 서부, 중부, 동부지대 농촌들에서는 알그루와 뒤그루감자농사를 대대적으로 하여 생산량을 계속 늘여야 한다.

다수확종자의 무비루스감자종자와 앞선 과학농법을 적극 도입하고 종합적기계화실현에 박차를 가하며 감자농사와 축산을 잘 배합하여 세운 고리형순환생산체제가 더 큰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도, 시, 군, 농장일꾼들은 정보당 감자생산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팔장을 불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대흥단군사람들처럼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감자농사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길에서 자기의 애국심을 검증받아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감자농사에서 또다시 비약을 일으키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는데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5년간 우리 군이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전국의 앞장서서 힘차게 달려온것을 잊을수 없는 비결은 뭘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흥단군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리헤안의 예지로 가르쳐주신 고리형순환생산체제의 확립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농사를 축산과 배합하지 않고서는 수확고를 높일수 없습니다.》

감자농사가 잘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하것은 거름이다.

거름이 없이는 어떻게 넓고넓은 백두산의 부사방을 갈갈수 있으며 감자의 왕성한 생육을 보장할수 있었는가.

처음에 이렇게 고심했던 우리들이다. 하지만 15년전 그날 우리 군을 찾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농사를 잘하면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밭에 내야 한다고, 현대의 감자농사는 반드시 축산과 배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돼지를 길러 물거름을 많이 내데 대하여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받들고 그때부터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였다.

## 10월의 감자꽃

가을은 무르익은 오곡을 걸어들이는 계절이다. 하지만 이 계절에 피는 꽃이 있다.

엄마친 내가 가을인데전투로 들끓는 배천군 신월협동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농장일꾼의 안내를 받으며 가을이여 한창인 포전들을 돌아다니는 푸른빛 짙은 감자포전에서 주조반은 처녀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옥실동무, 감자꽃이 피기 시작했어.》

《정말, 이제 얼마 있으면 감자꽃이 만발하겠지.》

초기심이 통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 어느 때 감자꽃이 더 고운가고 묻자 한 처녀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5월에 피는 감자꽃도 아름답지만 10월의 감자꽃은 더욱 불만 하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웠던 것이 치밀어오르듯 감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고 두벌농사를 발전시키면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원만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10월의 감자꽃! 그 말을 되새김질수 나는 이 땅

## 여러가지 감자가공품들이 쏟아진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가공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대흥단군만이 아니라 장진, 부전군을 비롯한 여러곳에 현대적인 감자가공기계가 훌륭히 일떠서 가공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오늘의 자랑한 현실을 대하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젖어드는 하나의 생각이 있다.

감자가공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것은 감자가공을 공업화하는것이라고, 여러가지 감자육식

을 공업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시며 끝없는 로고를 바친 위대한 장군님!

그 로고속에 대흥단의 오늘이 밝아왔고 제2, 제3의 대흥단군들이 날로 늘어나는 속에 감자가공문제가 전한이 일어나는 가슴벅찬 현실이 마련된것이다.

모든 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려진 대흥단감자가공공장, 정발 감자로 통하는 공장이 다. 감자가공능력에 끝없이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감자육식

## 각지 감자가공기지들에서

하기에 공장을 찾는 사람들마다 여러가지 감자가공품이 쏟아지는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렇듯 훌륭히 일떠선 감자가공기지에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는 가공품을 더 많이 먹이시려 백두삼천리별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헌신적인 투쟁을 벌린 대흥단사람들의 애국의 맘이 스며들었다.

소치리며 자랑할만 한 감자가공기들이 어찌 대흥단군에만 있었는가.

맛있는 감자가공품을 팡팡 생산해내는 대흥단감자가공공장에 못지 않게 훌륭히 건설된 비라보고 사람들마다 감탄의 목소리, 고마움의 인사를 버린다.

《선군시대에 감자농사는 물론이고 그 가공에서도 새로운 력사의 장을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기어오르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북부지대만이 아닌 각지의 농업근로자들도 감자가공을 가공하는 현대적인 기계들의 동음이 울려나온다. 감자농사로 들끓는 나라의 곳곳마다 현대적인 가공기계가 일떠서며 내 조국의 메일은 또 얼마나 좋을것인가.

본사기자

## 북부지대를 전변시킨 경쟁열풍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두손 일에서나 경쟁이 벌어져야 남보다 앞서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불발하게 되며 그 과정에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발전하게 됩니다.》

뜻깊은 기념일을 맞고있는 북부지대 농촌들의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온 나라에 세차게 지펴올리던 보람찬 나날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화폭이 북부고산지대 농촌들에 펼쳐진것인가. 감자생산을 늘이기 위한 농장, 작업반, 분조조상간 경쟁이 힘있게 벌어져 대흥단군은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설수 있었으며 다른 군들도 맹렬한 추진전을 벌렸다.

결과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으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없었던것으로 되었던 삼지연군 포대지구가 나라의 이름난 감자산지로 전변되었다. 감자종자생산체제가 그뿐이 세워지고 싹피우기, 비배관리 등 모든 영농작업에 앞선 기술이 도입되었다.

경쟁열풍속에 백암군에서도 전변이 일어났다. 나라없던 지난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던 이곳에 농기계들의 발동소리가 높이 울리고 밭에서 일꾼들의 땀이 흘러내리고, 폐기농사에 중저부를 찍고 감자생산에서 변혁이 일어났다.

장진, 부전군의 농업근로자들도 대흥단과학농법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감자농사경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결과 무비루스감자종자생산과 역병방지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어찌 이 단위를뿐이겠는가. 람평, 무산, 삼수, 갑산, 풍서군의 농장들을 비롯한 북부지구 농촌의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대흥단군의 모범을 따라 감자생산을 높이 쌓으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포전마다에 구슬땀을 바치고 있다.

북부지대 농촌들에 불어친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감자생산에서 비약이 일어난 궁지높은 현실을 보며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준지지도의 길을 뜨겁게 되새기고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감자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 장군님 열마니 커다란 위를 헤쳐주시었다. 대흥단군과 삼지연군, 백암군을 찾오시어 농사를 잘 짓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거대한 감자농사경쟁의 열풍이 온 나라 협동농촌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 주었다.

그 나날에 북부고산지대 군들이 이름난 감자산지로 전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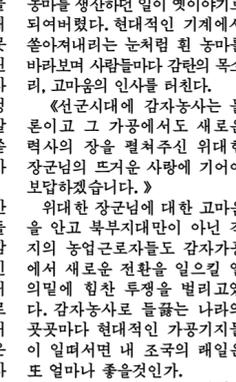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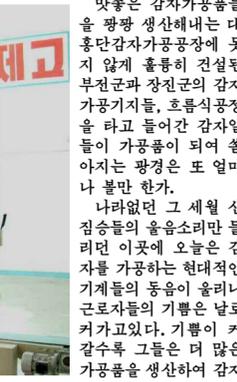
감자농사경쟁의 열풍이 서해지구, 동해지구에도 불어왔다. 감자농사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해 거세한 경쟁열풍을 일으키던 보람찬 나날들을 더듬어 보며 대흥단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더욱 파감히 뛰어들어 드넓은 백두삼천리별에 해마다 감자생산을 높이 쌓음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 주었습니다.》

오늘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도 이런 맹세가 차넘치고 있다.



대흥단 감자가공공장에서



특파기자 찍음

# 주체건축의 역사와 더불어 더불어 빛나는 건설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

## 평양건축종합대학이 걸어온 60년의 자랑스러운 로정을 더듬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양건설재대학을 비롯한 건설부문 교육기관들에서 현직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며 특히 수제 교육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설계자, 건축가들을 키워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수놓여져있는 평양건축종합대학!

김정은시대를 빛내며 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벽란 시기에 나라의 믿음직한 건설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 평양건축종합대학이 창립 6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창조와 건설의 년대기를 펼쳐온 우리 공화국의 역사와 더불어 대학은 자랑스러운 60년의 연혁을 새겨왔다.

하גיע 공화국창건 65돐과 건설 60돐을 성대히 경축한데 이어 뜻깊은 창립일을 맞는 대학의 획기적인 학생들은 남다른 긍지와 자랑을 안고 대학이 걸어온 수년의 갈라갈피를 깊고 깊이 들어보려고있다.

설자가 되어 빈터위에 건설의 마지못해 높이 올린 천후복구 건설로부터 시작하여 대학은 우리 조국의 건설사에 위훈의 자욱자욱을 빛나게 아로새기고있다.

평양속도가 창조되던 날과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킨 1970년대를 이어 80년대 속도, 90년대속도를 창조해나가는 벽난 나날에 수없이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다 말해주고있다.

평양시를 비롯하여 도처에 수풀처럼 일떠선 살림집들은 물론 만경대혁명사적지와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 주체사상탑, 평양체육관, 인민대학습당, 청년중앙회관, 동명양대극장...

세상사들을 논해지는 건설 속도를 창조하던 그 나날에 대학이 거둔 성과는 참으로 많다. 1960년대만 보아도 대학의 교육자들은 새로운 조립식건설공법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무심도가초리론을 개척하여 국제학술계를 뒤흔들었다.

동명양대과 개성의 명동사, 평양민속공원을 비롯하여 민족건축창조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대학은 창립후 지난 60년간 수많은 기사들을 키워내어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초소들에 내세웠다.

이 대학졸업생들 가운데서 100여명의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이 배출된 사실은 부강조국건설에서 맡고있는 대학의 사랑과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국 땅이르는 곳마다에 솟아있는 기념비적건축물들에는 바로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졸업한 건축가들의 해능이 스며있음을 사람들이여, 잊지 마시라.

이런 유능한 건축장작집단, 믿음직한 건설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다.

다들 빠짐없이 보아주시면서 자랑했다고 치하도 해주시고 완공을 눈앞에 둔 건설장을 찾으시어서는 설계를 진행한 대학 교육자들과 수도고 해아려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헌신의 자욱이 눈물겹게 안겨온다.

못 잊을 주체51(1962)년 12월 모소대학에 찾아오시어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대학사업을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여오셨다.

주체건축의 전성기를 펼쳐가시던 날에는 대학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의 설계를 통틀고 맡겨주시고 설계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창조적일들의 불을 지펴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던 주체건축예술의 위대한 스승이신 어버이수령님.

그 때로써 손을 이끌어 대학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수없이 창조한 관록있는 건축장작집단으로, 제능있는 건축가들을 키워내는 인재양성의 원동장, 건설과학연구중심으로 강화발전되고있다.

철세위원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창립당시 교원 27명과 300여명의 학생, 3개의 학부들을 가지고 첫걸음을 댄 대학이 오늘날은 수백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과 두드러진 과학자들과 건설계, 도사정경, 국토환경보호부문 등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과 학부들, 수십개의 강좌와 박사원,

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지금 지식경제시대를 떠메고나갈 인재를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동일, 리종현, 홍성동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의 열의와 기세는 좋다.

대학에서는 정치사상과목교수를 앞세우고 새 과목들도 개척하면서 교육내용의 현대화와 특색이 있는 5차원설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현대적인 컴퓨터설계실들과 국어사정각실들, 실험실들도 훌륭히 꾸러놓았으며 건설과학연구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학이 내세운 목표는 방대한 공업,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오늘날의 시대는 재능있는 설계자, 건축가들을 부르고 있다.

창립 60돐을 맞는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김정은시대를 빛내며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세계적인 설계자, 건축가들과 건설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 볼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재능있는 건축가들을 키워내는 관록있는 대학, 최첨단물건의 불길을 새차게 일으켜나가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앞으로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을 더욱 옹호추진하며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나가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공로혁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 전승의 해에

대학에 철세위원들의 령도업무를 전하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이 들어있는 구려지었다.

이곳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대학의 연혁사를 이야기해 주던 부총장 김영배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대학은 60년전 전승의 해에 창립된 의의깊은 대학입니다.》

### 대여난 대학

수년전 세워낸 동방의 유일인 건설부문 대학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세계에는 오랜 력사와 규모, 교육수준 등을 놓고 제나라대로 자랑을 가진 대학들이 많다.

하지만 전승의 해에 제머리를 헤치고 태어난 대학은 오직 평양건축종합대학뿐이다.

###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이 땅 어디에나 거언히 일떠서 조국의 재부호, 력사의 기념비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건축물들마다에는 시대의 모습들이 비껴있고 내 조국의 번영에 주추들이 되고 기둥이 되어온 건축가들의 땀과 지혜, 창조적 열정이 스며들어있다.

하나 건축가들의 지혜와 재능, 창조적 열정도 위대한 품을 떠나 어찌 말할수 있겠나.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생전 건설종합대학이 자기의 사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이렇듯 위대한 위훈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시었다.

### 1 면에서 계속

민족적정서와 깊고 높은 예술적기교로 일관된 음악과 무용, 제조와 교예, 천변만회하는 배경과 대사로 눈 빛을동요효과와 조형, 불꽃추보 등으로 황홀경을 펼친 공연은 날로 개회발전하는 주체예술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 7월 26일 정승일에 즈음하여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아주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과 각지의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변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고 격정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고 조국 백색방랑전쟁을 승리케 하고 이근적백승의 강철의 평양 깃발성대원수님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주시고 부강민국의 건국기쁨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은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걸감하며

###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걸출한 수평, 최세의 선군명장들을 높이 모시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력사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고 김정은시대의 위대한 열정이 새겨져있는 찬란한 예술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태양조선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격동적이며 경이적인 사변들,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진실하게 반영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관람자들은 조국수호와 강성변영을 위한 투쟁에 쌓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로 가슴깊이 열거하였다.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 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제일본조선인축하단, 제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해외동포대표단원들과 동포들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조선 민족으로서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수리아아랍공화국대표단, 잠비아공화국대표단, 우간다공화국대표단 등 많은 외국대표단원들과, 외국인들은 이러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조선에서 단 볼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조선이 끝없이 튼튼변영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김일성세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태양 민족의 국보로, 인류문예사에 특기할 대적작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 내 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맑고 푸른 하늘, 울림이 절절치는 전야, 수려한 산발...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앞서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마다에 펼쳐지는 풍요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좋게 만들 것이다. 구역과 구역사이, 마을과 마을사이의 배구경기며 장외와 장외를 비롯한 민속오락경기.

그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정경대원수들과 근로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다.

국제로인의 날인 10월 1일을 맞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배를 쏜다 하고 내세워주는 고상한 사회경기들이 더 활짝 꽃피고 있다. 어찌 가나 사랑과 평안이 넘치고 젊음과 열정이 넘쳐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은 후세대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혁명적의무이며 승군과 도덕적의무로 된다.》

근로자의 생활과 건강을

### 인민적시책과 사회적기풍속에

국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한 시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도 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근로자들에게 문명하고 행복의 생활을 보장하여주고 있으며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로 세운 근로자들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살펴주고 있다.

지난 7월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국의 건설로병대들이 평양에서 뜻깊은 정승일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중점경기를 준비하시였다.

건축회사에 참가한 정경로병들은 전승의 축하가 오른 때로부터 60년세월이 흘렀지만 자기들을 뜻깊게 보아주시고 지켜봐주는 혁명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견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 변함없이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추추지는 격정을

### 금치 못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 은정 어린 생일상도 받아안으며 끝없는 기쁨과 행복에 울고웃는 정경로병들의 모습에서 온 나라 천만근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사야말로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 이시며 철세위원들에 의하여 마련되고 이어져오는 사랑과 신뢰의 세계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없음을 실감으로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

돌아보면 우리 나라에서 국가 근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인민적인 시책이 실시되고 온 사회에 근로자들이 존경받고 적극도무하는 기풍이 확립되어온 력사는 철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인간애와 고결한 의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이 땅에 나라형편이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로동평화와 함께 사회보호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국가적책임을 맡고 있는 정경로병들을 누릴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이 땅에 나라형편이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로동평화와 함께 사회보호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국가적책임을 맡고 있는 정경로병들을 누릴수 있게 하였다.

###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육유희경기 전국 각지에서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각지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육유희경기가 진행되고있다.

공원과 유원지마다에서 근로자들이 즐기는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은 룡라인민유원지 일군들과 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와 봉사들을 받으며 룡라유원지에서 여러 유희기구를 리용하고 룡라공터에서 짜깁기 품어들어온 제주도 관람하면서 유희적인 시간을 보내고있다.

개천천연공원유희장에서 도 정경로병들과 근로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한 봉사준비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평양시 근로자들의 구역간 배구경기나 장외 및 풋볼경기, 낚시, 낚시터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예선과 준결승경기를 거쳐 치열하게 진행된 배구결승경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있다.

평양대극장에서는 근로자들과 예술인들의 연합공연준비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유류관, 청류관을 비롯한 수도의 금양봉사적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봉사준비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각 도, 시, 군들의 금양봉사적지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봉사준비를 잘하고있다.

함경북도도 라선시, 강강도와 함경남도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여러가지 문화행사와 체육유희경기가 지방의 특성에 맞게 다채롭게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리 남 호

### 청년선수권대회 지상호케이경기 결속

룡라인민체육공원에서 9월 20일부터 시작된 청년선수권대회 지상호케이경기가 끝났다.

경기는 평행전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9월 30일 마지막 경기가 평양청도국제체육단과 조선체육대학, 판포농체육단과 수양산체육단사이에서 벌어졌다.

경기 기간 선수들은 평시와 같은 훈련을 계속하며 높은 투지를 발휘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 중조우호협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청도국제체육단 남자선수들과 해포체육단 여자선수들이 잠재된 2,3일경향과 순간적방영, 단편연기물을 유익적으로 결합하여 각각 1등을 정하였다.

와우도체육단(남자, 여자)선수가 2등을, 판포농체육단(남자, 여자)선수들이 3등을 하였다.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경기는 나라의 지상호케이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 60명 청년들의 배구경기

자배본 타격은 모두의 절찬을 자아냈다. 만경대구역팀 선수인 리희호의 공과두는 승승에 역시 처치시절 배구선수로 이름을 날린 공훈체육인이 다르고 다르고 감탄하는 사람들다 많았다. 선수들에게는 짧은 시절 체육단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로인들도 있었지만 대중체육동을 통하여 배구기술을 익힌 로인들도 적지 않았다.

승원 또한 장관이었다. 북



들이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 옛 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만경대은 김일성주체적위업과 일기분들의 혁명생애를 전하는 뜻깊은 곳이라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조국해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추려나온 초가에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나라찾을 큰 뜻을 키우신데 대한 해설을

정경승리기념관,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우의관, 대원선선유리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중조우호협회대표단과의 친선모임 진행

조중 두 나라 친선협회결성 55돐에 즈음하여 중조우호협회대표단과의 친선모임이 9월 30일 동명양대 1중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부동화회장을 단장 모으는 중조우호협회대표단이 초대되었다.

관계부인 일군들, 교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학교의 모택동상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학생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 스위스련방 외부성대표단 도착

베아트 늑스 국무부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련방 외부성 대표단이 9월 30

### 2013년 아시아 16살미만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조별리그전소식

우리 나라 팀이 중국대북팀을 10:0으로 이겼다

《평양 9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2013년 아시아 16살미만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조별리그전소식이 중국 남경에서 진행되었다. 9월 30일에 벌어진 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은 중국대북팀을 10:0으로 이겼다. 우리 나라 팀은 10월 3일 중국 팀과 준결승경기를 하게 된다.

상봉광산 2구역 사랑받는 영광을 받는다.

김성일동무는 평안일군들과 종업원들로부터 재능있는 영광으로 사랑을 받고있다.

지난 40년간 그는 높은 기술기능으로 대형설비조립과 설치, 건축물건설 등 가장 어렵고 힘든 전투마다에서 지혜와 열정을

### 사랑받는 영광

아낌없이 바쳐왔다.

파쇄기를 대보수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는 작업반원들과 집체적지혜를 합쳐 두달이 걸려야 한다고 하던 대보수준트를 20일동안에 해결하였으며 전투마다에서 지혜와 열정을

### 사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는 대형파괴기, 대형형양기, 대형공배양기, 압축기설치 등 평안에서 제기되는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들을 훌륭히 맡아안고 빠른 시일만에 해결하였으며 평안생애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로동신문원 리 삼 두

### 본사기자 리 남 호

본사기자 리 남 호



